

겨울 밤

밤늦게 까지 아들의 퇴근을 기다리더니
 오늘은 초저녁부터 혼곤하게 주무신다
 아버지 돌아가신 후 부쩍 수척해지신 어머니
 한참을 바라보다가

우리 육남매 낳아 준 엉치뼈
 유치원생처럼 졸아든 키
 한없이 가벼워진 몸, 주물러드린다
 아이고 시원타 연발하면서도
 이제는 뻘다고 자꾸 아들 생각하신다

아내는 방에서 연속극 보고
 아이들은 제 방에 처박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겨울밤,
 한때 열두 식구 북적거리던 식구들
 제 길 찾아 이승으로 저승으로 떠나고
 어머니와 단 둘이 앉아
 옛이야기 나누는 겨울밤.



강경호

1997년 《현대시학》으로 등단
 시집 『함부로 성호를 긋다』 『휘파람을 부는 개』 외 다수
 문학평론집 『휴머니즘 구현의 미학』, 미술평론집 『영혼과 형식』
 2010년 한국시인협회 젊은시인상을 수상
 현재 계간 《시와사람》 발행인 겸 주간